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욥 2,10)

저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어른스러운 욥의 태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상력으로 제 내면의 집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혼란이 있지만, 그것은 제 집이고 집 냄새가 납니다. 저는 배우고 있고, 그것은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제가 연피정을 하고 있을 때, 산책 중 중간 크기의 개가 제게 다가왔고, 개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저 자신을 진정시키고는 ‘갑자기 너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야?’ 저는 저의 새롭고 다른 반응에 놀랐습니다.

제 심리 집단그룹과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문화적으로 물려받은 여성의 두려움을 연결시켜 몇 초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나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어서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발발하며, 제가 태어난 라틴 아메리카에서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수 세기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의 관계, 반응, 분위기 상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문화적 유산과 조상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많은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 예를 활용합니다. 힘들게 살아온 선조들의 정신적 빛을 무심코 물려받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신이나 후손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복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속된 약속과 비밀, 우리를 묶고 그 사슬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되고 해방되어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 야유회



5월 29일(목)~31일(토)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자연을 둘러보며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정시설 봉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 주는 대표봉사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6월 2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사람을 이기겠다고 더 강해지려고 하면 차츰 우리 역시 그 악인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라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발버둥 치지 않으시고 곳곳이 악한 이들 편에서 치유하고 살리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이 무리하고 악해질수록 우리가 더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길 독려했습니다. 교정시설의 모든 수용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각 교정시설 세례식



6월 13일(금)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8명, 6월 17일(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1명의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봉사자와 수용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그들에게 따뜻한 기댔 언덕이 되어 주시어 주님을 맛 들이게 하소서.”

김연숙 카타리나_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세월은 참으로 빨라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을 살던 동네를 떠나 낯선 동네로 이사 와서 마음을 못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권유받고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 처음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섰을 때의 낯센과 어색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네 꽃집을 수소문해서 매주 풍성한 제대 꽃을 준비해 오시는 자매님,

하나라도 더 많이 맛있는 간식을 주고 싶어 매번 애타는 자매님,

이에 마음과 물질로 정성을 보태시는 자매님,

그 바쁜 중에도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해 와서 가끔은 재소자들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매님,

거기에 늘 검소함과 겸손함을 지니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신부님들,

미사가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는 교도관님들.

20년, 30년씩 긴 세월을 매주 오셔서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제가 더 경건해지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성들이 모여서 봉헌하는 미사를 어찌 주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이 미사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하느님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경외심) 주님께 다가가기를 허락하소서.”

“다가오는 그들에게 따뜻한 기댔 언덕이 되어 주시어 주님을 맛 들이게 하소서.”

처음 봉사하러 왔을 때보다 영성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묘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자매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와 정성을 봉헌하다 보면 선한 영향력이 민들레 홀씨처럼 훨훨 날아서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지요.

이런 미사에는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마태 9,12)

이정준 다니엘 신학대학 수련휴학(프락티쿰)

안녕하십니까,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의 해 기간에 올해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곳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프락티쿰 활동을 한 신학과 2학년 이정준 다니엘 신학생입니다. 4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의 체험을, 소식지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나는 어른이 되면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 되어 반짝반짝 빛날 것이란 기대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별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작은 반딧불에 지나지 않을 때, 반딧불의 작지만 예쁜 반짝거림보다 슬픔과 후회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이런 자조 섞인 말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5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많은 구치소, 교도소를 다니며 수용자들을 만났습니다. 사회 안에서, 가족들 품 안에서 빛나고 있어야 할 별들이 이곳에 모여 빛을 잃고 어두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 출소 이후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기쁨과희망은행’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분들께선 출소 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금방 일어설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 사회에 나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더 냉혹했다고 합니다. 몇 번씩 좌절도 하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건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실시한 취·창업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갇혀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 자립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께 고마웠고,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서고 싶어 열심히 준비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마태 9,12)

처음에는 이름이 아니라 수용 번호로 불리고, 수용복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미사 때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하느님 외에는 붙잡을 것 하나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난 이들이기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아픔이 많은 곳에 더욱 깊이 현존하시어 모든 이들 마음속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완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더러 보았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풀어지도록,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의 봉사가 결정되었을 때 주변에서 제게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긴장을 품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 닫힌 마음이 선입견을 만들어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사람의 죄를 먼저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노력은 항상 제게 요구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선 제 마음속 완고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시어 만나는 수용자들에게 저절로 마음이 향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고 제가 느꼈던 체험처럼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느님께 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기쁘게 지낼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이들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음을 알기에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민하 울리오 신부님과 송정섭 시몬 신부님,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모든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분과 후원회원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만남과 체험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OO_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 일을 병행하다 우연히 활동 의류의 성장성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1년간량 시장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 분들 스타일 확인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의류 업종의 경우 일반인 상대가 아닌 전문 작업자를 위한 옷을 제작하는 특수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단점이라면 의류업의 특성상 시즌에 따른 생산 재고입니다. 모든 의류 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은 시즌에 판매를 못하면 재고로 남고 악성 부채가 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배웠던 디자인을 밑바탕으로 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인이 옷 생산을 맡아주셔서 무모하지만, 창업 결심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병행하며, 창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고 여동생의 도움으로 작은 사무실을 임대한 후 현재 판매 대금으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하고, 스마트스토어 채널별 개설 및 SNS 등록하였습니다. 부족한 기초 세무회계는 영상을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및 국내 활동 의류 브랜드 스타일을 공부하고 창업하는 활동 블록의 시즌 스타일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사에 진심으로 접근하고 상대방을 대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업 능력인 거 같습니다. 24시간 진심을 담아서 고객에게 응대하였습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돈과 시간이 부족한 저로서는 영혼을 갈아 넣는 심정으로 매일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작업 조끼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작업 조끼를 내세워 영업할 계획입니다. 한국 작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적이고 고품질의 옷을 만들어서 영업할 계획이며 앞으로 3년 안에 로드샵을 오픈하여 고객과의 대면 접점을 늘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어려움이 생기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의 근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가려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밑바탕으로 하여 다른 업체보다 스타일도 좋고 고품질의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서 죽을힘을 다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기쁨과희망은행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님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표본이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움받은 만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



신부님 이번 문제도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물어봤던 "영애"와 "어머니의 기도" 기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도 열심히 풀었어용ㅎㅎ "이번 문제에 쓴 '달'의 의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달'이 에요~

밤하늘에 뜬 달을 보고 있으면 위로를 받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제가 누군가
에게 위로를 되어줄수있는사람, 희망을 줄수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달' 같은 사람
이 되고 싶다고 적었어요!!

신부님 저는 이곳에 2년 동안 있으리신 신부님 같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편지를 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첫 편지를 쓸때도 "이렇게 편지를 써도 되나?"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신부님께서 제가 한 질문에 쉽게 이
어서 할수있도록 설문을 잘 해주시고 제가드린 부탁도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맛있는거 많이드시고 몸 건강하시고 신부님과의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ㅎㅎ

2025. 6. 13

남부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8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7월 7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월 14일(수)~17일(목)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4기 인성교육
- 7월 16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7월 21일(월)~25일(금) 서울북부보호관찰소 3차 소년수강명령 교육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05/16~06/15)

2025년 5월~6월에는 박승환, 설은미, 우지은, 조주남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갑수 프란치스코, 김성천, 대금결제, 부의, 장위동성당, 행당동성당, 형사보상금님 이름으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